

에미 유 STPI 대표이사

실험으로 넓힌 창작의 경계

판화와 종이를 매개로 세계 각국의 작가들과 새로운 창작 방식을 실험해온 STPI. 에미 유 대표이사는 20여 년간 그 중심에서 작가와 전문 제작자가 함께하는 협업을 이끌어왔다. 익숙한 재료와 기법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소나 기자 jung.sona@joongang.co.kr _ 사진 지미연 객원기자

지난 9월 프리즈 서울 2026에서 싱가포르 타일러 프린트 인스티튜트(Singapore Tyler Print Institute·STPI)는 서도호 작가의 작품으로 솔로 부스를 꾸렸다. 서 작가와 STPI가 오랜 시간 함께 발전시켜온 ‘실 드로잉(Thread Drawings)’을 비롯한 작품을 선보였고, 그중 〈Breathing Home〉(2025)은 페어 초반 판매됐다.

STPI와 서도호의 인연은 2009년 첫 레지던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작가와 워크숍 팀은 ‘집’과 ‘소속’이라는 주제를 판화와 종이로 표현할 방법을 찾다가 실이라는 재료에 주목했다. 그렇게 시작된 실험은 오랜 협업을 거쳐 실 자체가 종이 안에서 선이 되는 독특한 드로잉 방식으로 발전했다.

그 과정을 오랫동안 함께해온 인물이 에미 유(Emi Eu) STPI 대표이사다. STPI가 공식 개관하기 1년 전인 2001년 합류해 20년 넘게 함께해왔다. 2002년 설립된 STPI는 워크숍과 레지던시, 갤러리를 한 공간에 갖춘 예술 기관이다. 작가와 전문 판화가, 종이 전문가들이 함께 새로운 재료와 제작 방식을 탐구하고, 그 결과물을 전시와 국제 아트페어를 통해 소개한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와 세계 각국의 작가 100명 이상과 협업했다.

유 대표의 활동 반경은 STPI에만 머물지 않는다. 2012년부터 아트바젤 홍콩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동남아시아 현대미술 플랫폼 S.E.A. 포커스(S.E.A. Focus)를 이끌었다. 2026년과 2027년 행사에는 아티스틱 컨설턴트로 참여한다. STPI는 2013년 싱가포르 갤러리 최초로 아트바젤 인 바젤에 참가했으며, 현재 아트바젤의 세 개 페어에 모두 참가하는 유일한 싱가포르 갤러리다. 프리즈 서울에 참가하

기 위해 한국을 찾은 유 대표를 유중아트센터에서 만나 STPI와 함께한 시간부터 작가들과 이어온 협업, 서울과 싱가포르의 미술 생태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STPI가 공식 개관하기 전인 2001년부터 함께했다. 20년 넘게 지켜본 STPI는 어떤 곳인가.

STPI는 싱가포르에 자리한 워크숍이자 현대미술 갤러리다. 싱가포르 문화·공동체·청소년부(MCCY) 산하 예술 기관이며 국가 비주얼 아트 클러스터(Visual Arts Cluster)의 일원이기도 하다. 2002년 공식 개관하기 한 해 전부터 함께했으니 기관과 같이 성장해온 셈이다.

지난 20여 년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온 것은 작가들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과감한 시도를 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었다. 실험과 협업은 지금도 STPI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있다.

워크숍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비지iting 아티스트 프로그램(Visiting Artists Programme)이 있다. 참여 작가 상당수는 판화나 종이를 본래 작업의 중심 매체로 삼지 않았지만, 실험과 협업은 STPI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있다. **2002년 STPI가 문을 열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시도 자체가 낯설었다. 초창기에는 무엇부터 만들어가야 했다.**

당시만 해도 국제적인 현대미술 작가들을 싱가포르로 초청해 판화와 종이로 실험하도록 한다는 발상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 사실상 조직을 처음부터 구축해야 했고, 이 지역에는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모델을 만들

어가야 했다. 바로 그 점이 무척 흥미롭고 도전적이었다.

20년이 넘게 흐른 지금도 가장 중요한 역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작가들에게 가능한 한 좋은 창작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레지던시는 작가와 STPI의 전문 판화가, 종이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협업이며, 각각의 작가를 만날 때마다 STPI도 새로운 것을 배운다. 동시에 현대미술을 둘러싼 대화를 확장하고 더 폭넓은 관객과 연결할 방법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

정승우 이사장과 에미 유 STPI 대표이사가 판화와 종이를 매개로 한 작가들과의 협업, STPI가 이어온 실험과 싱가포르 미술 생태계에 대해 대화를 이어갔다.

미술관도, 상업 갤러리도, 일반적인 레지던시도 아니다. STPI만의 독특한 구조는 무엇인가.

가장 큰 특징은 워크숍과 레지던시, 갤러리가 한 공간 안에 결합돼 있다는 점이다. 작가가 머물며 실험하고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결과물을 관객에게 선보이는 과정까지 한곳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 STPI는 싱가포르 시각예술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꾸준한 공공 지원도 STPI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오랜 시간 기관을 믿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준 덕분에 지금의 모습을 갖추 수 있었다.

매년 개최하는 프린트 쇼(Print Show)와 심포지엄 싱가포르(Symposium Singapore)를 통해 싱가포르 미술계와 학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주요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은다. STPI가 교류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점점 역할을 하는 셈이다.

아트바젤 인 바젤과 아트바젤 홍콩, 프리즈 서울과 프리즈 런던 같은 국제 아트페어에도 참여한다. 이를 통해 해외 관객에게 STPI에서 제작된 작품을 소개하고,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있다.

함께 작업할 작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태도다. 판화와 종이를 매체로 탐구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STPI 워크숍 팀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실험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본다.

서도호 작가와는 거의 20년에 걸쳐 창작적 교류를 이어왔다. 그 인연의 시작이 궁금하다.

서도호 작가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004년경이었다. 작품 〈Paratroopers〉를 통해 그의 작업을 접했고, 이듬해인 2005년 도쿄에서 직접 만났다. 당시 기억으로는 그가 도쿄현대미술관(MOT)에서 작품 〈Reflection〉을 설치하고 있었다. 그때의 만남에서 그와 STPI에서 반드시 함께 작업해야 한다는 확신이 생겼다.

실제 협업은 2009년 서도호 작가가 STPI의 비지팅 아티스트 프로그램에 참여해 첫 레지던시를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작가가 STPI를 다시 찾을 때마다 기존 아이디어를 다시 살펴보고 새로운 소재를 실험하며, 또 다른 접근 방식을 발전시켜왔다.

그 긴 협업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작업이 이번 프리즈 서울에서도 선보인 ‘실 드로잉’이다. 2009년 첫 레지던시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시작됐나.

실 드로잉은 서도호 작가와 STPI 워크숍이 협업해 완성한 작업으로, STPI 워크숍의 실험정신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시작은 2009년 첫 레지던시였다. 당시 ‘집’과 ‘소속’이라는 주제를 판화와 종이라는 매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다양한 판화 기법을 시도했다. 전환점은 STPI 워크숍 팀이 서도호 작가의 스케치에서 영감을 받아 실(Thread)을 사용해보자고 제안하면서 찾아왔다. 작가와 워크숍 모두에게 새로운 방향을 열어준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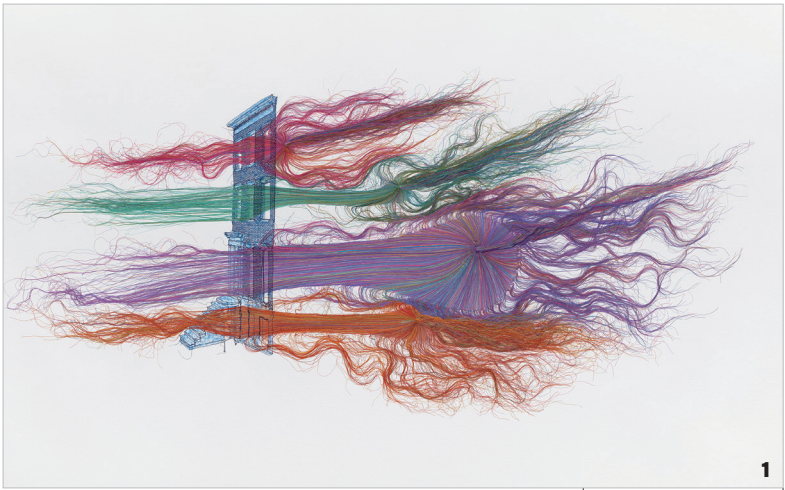
20여 년간 STPI를 이끌어 세계 각국의 작가 100명 이상과 협업해온 에미 유 대표이사.



처음에는 하나의 실험이었지만 점차 새로운 형태의 드로잉 방식으로 발전했다. 단순히 종이 표면 위에 실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STPI에서 수작업으로 제작한 종이에 실을 삽입해, 실 자체가 드로잉의 선이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후 여러 해에 걸쳐 서도호 작가와 STPI 워크숍은 이 기법을 함께 다듬어왔다. 현재는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정교해졌다. 거의 20년에 걸쳐 이어진 실험을 거듭하며 실 드로잉은 복잡성과 규모 면에서도 확장돼왔다.

오랜 시간 여러 작가와 협업하면서 뜻밖의 결과로 이어진 순간



도 있었을 것 같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

양혜규 작가가 2012년 STPI 레지던시에 참여했을 때가 떠오른다. 양 작가는 레지던시가 시작된 뒤 첫 3일 동안 싱가포르 곳곳을 돌아다니며 현지 시장을 비롯한 여러 장소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마주한 색과 질감, 냄새에 큰 흥미를 느꼈고, 그 경험이 결국 향신료 같은 재료를 종이와 판화에 결합해 실험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흥미로운 건 레지던시를 시작할 당시에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싱가포르에서 우연히 마주친 평범한 경험이 새로운 작업을 촉발한 것이다. 레지던시는 바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어야 한다. 실험을 위한 조건은 만들어줄 수 있지만 결과를 미리 정해놓을 수는 없다.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이 가장 중요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프리즈 서울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서울과 싱가포르의 미술 생태계를 비교한다면.

두 도시는 상당히 상호보완적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은 탄탄한 국내 문화 생태계를 갖췄다. 프리즈 서울 기간에 직접 느낀 에너지만 봐도 컬렉터와 갤러리, 미술기관, 예술 커뮤니티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지 알 수 있다.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과 열기도 인상적이다.

싱가포르의 강점은 조금 다르다. 지리적·문화적으로

1 서도호, <Breathing Home>, 2025. 140.6×251cm.
2 서도호, <Haunting Home>, 2026. 141.5×177.7cm.
두 작품 모두 STPI에서 수작업으로 제작한 면 종이에 실을 삽입해 완성했다.
© Do Ho Suh.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and STPI, Singapore.

동남아시아에 자리하면서도 세계 각국의 미술계와 활발하게 교류하는 도시다. 동남아시아와 국제 미술계를 잇는 중요한 접점이기도 하다.

싱가포르 아트 위크(Singapore Art Week)가 좋은 사례다. 이 기간에는 미술관과 갤러리, 아트페어, 독립 예술 플랫폼이 한데 모이고, 동남아시아는 물론 세계 각국의 작가와 컬렉터, 큐레이터, 관람객이 싱가포르를 찾는다.

동남아시아 현대미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한국 컬렉터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

동남아시아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보지 않았으면 한다. 여러 국가와 세대를 폭넓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저마다 다른 만큼 이 지역의 작업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다.

서도호와 양혜규, 이불 등 한국의 주요 작가들과 꾸준히 협업해 왔다. 앞으로도 한국 작가들과 협업할 계획이 있다.

그동안 한국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작가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 가장 가까운 일정으로는 2026년 10월 STPI에서 선보일 〈Yoo Hyun Mi: The Blank Puzzle(The Image Yet to Come)〉이 있다. 유현미 작가가 2023년과 2024년, 2025년 STPI에서 진행한 레지던시에서 발전시킨 작품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국 작가들과의 새로운 협업도 언제든 열어두고 있다. **F**



정 승 우

고려대학교 법학과(학사), 동 대학원(법학 석사, 법학 박사) 졸업 후 2011년 공익재단법인 유중문화재단과 복합문화공간인 유중아트센터를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